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종단적 변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조 효 진

유 성 경[†]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갖는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종단적 변화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고 정신건강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권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3번의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1차(1,087명)에 참여하고 2차(475명) 또는 3차(370명) 설문에 참여한 47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성장 변화에 따른 5개의 집단이 확인되었고 ‘부적응적 의미추구형(높은 추구-낮은 발견)’, ‘적응적 의미발견형(낮은 추구-높은 발견)’, ‘의미추구 진행형(중간 추구-중간 발견)’,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 ‘의미발견 정체형(낮은 추구-낮은 발견)’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각 집단이 정신건강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집단별로는 ‘적응적 의미발견형’과 ‘적응적 의미성취형’은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적응적 의미추구형’과 ‘의미발견 정체형’은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집단으로 나타나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삶의 의미, 정신건강, 종단연구, 잠재계층성장모형

* 본 연구는 조효진(2018)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종단적 변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 02-3277-3911, E-mail: skyoo@ewha.ac.kr

사람들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자 하기에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Frankl, 1963). 삶의 의미는 변화하는 삶에 따르는 가치관의 혼재,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개념이자 행복과 안녕감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eine, Proulx, & Vohs, 2006; McIntosh, Silver, & Wortman, 1993).

특별히, 대학생들이 겪는 발달적 문제를 현대사회의 구조적 맥락과 연결하여 해석하고자 한 Arnett(2000)는 산업화된 사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성으로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는 현상을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s)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선진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전문화된 인력의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의 연장, 늦어진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독립의 유예 등으로 성인으로서의 이행도 함께 늦어지기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Côté, & Bynner, 2008; Hendry, & Kloep, 2007). 국내에서 실시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대한 대규모 조사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자신을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기보다는 '정체감 혼란'이나 '정체감 유예'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삶의 목적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시기인 대학생들에게 삶의 의미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에(Fry, 1998),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는 발달적인 맥락에서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김상희, 박성현, 2017).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가 대학생들의 정체성 발달을 돕는 자원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조하, 신희천, 2009; Subtrica, Pop, Luyckx, Dezutter, & Steger, 2016).

성인으로서의 자율성을 찾아가는 특별한 기간인 대학생 시기 동안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해 가는 것이므로, 건강한 자기 탐색과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정체성 확립 및 성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btrica et al., 2016).

한편,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복한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 증명되어왔다(김보라, 신희천, 2010; 송현심, 성승연, 2017; Steger, Frazier, Oishi, & Karler, 2006; Zika, & Chamberlain, 1992). 하지만 삶의 의미를 획득해가는 과정이나 삶의 의미 획득 이전의 시간도 안녕감이나 행복과 정적인 연관을 지니는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Steger, Kashdan, Sullivan, & Lorentz, 2008; Wang, & Dai, 2008). 이러한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두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삶의 의미를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삶의 의미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인 '의미추구(search for meaning)'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인 '의미발견(presence of meaning)'의 두 구성개념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하였다(Steger et al., 2006).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번안한 원두리, 김교현과 권선중(2005)은 'presence of meaning'을 '의미 존재'로 번역하였으나, 이후 국내 삶의 의미와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는 '의미발견'으로 통용되어 사용되어왔다. 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의미추구'는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인지적, 행동적 활동(Heine et al., 2006), 자기 성장을 위한 열망과 동기인 동시에 삶의 자연스

럽고 건강한 측면으로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경험을 이해하고 조직하려는 바람으로 정의된다(Steger et al., 2008). 또한 ‘의미발견’이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주관적인 지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게 될 때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Steger et al., 2006). 또한, 힘든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하여 이해하게 될 때 생기는 것으로, Park(2010)에 의하면 삶의 의미발견은 구체적 상황에서 발견된 의미(meaning-made)나 의미 획득(sense of meaning)을 통하여 전반적 삶의 신념을 지칭하는 ‘전반적 의미(global meaning)가 형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두 구성개념의 구별에 따라 Steger 등(2006)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우울해질 수도 있기에 의미발견이 없는 의미추구는 부정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Wong(2012)에 따르면, ‘의미구성모델’에서의 의미추구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 앞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시작된다(King, & Hicks, 2009).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삶의 의미가 도전을 받아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데 이것이 의미추구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볼 때, 의미를 찾지 못한 의미추구는 부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Frankl(1963)은 의미추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이자, 삶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한 측면으로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조직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한 것이기에 이러한 의미추구는 긍정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구분하여 진행된 연구는 Steger 등(2006)이 제시한 삶의 의미의 두 구성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서구권에서는 대체로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는 의미추구는 자신의 삶에 덜 만족하고 자아 수용이 낮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타나며 안녕감을 낮추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다(Duffy, & Raque-Bogdan, 2010; King, & Hicks, 2009; Park, Park, & Peterson, 2010; Steger, Oishi, & Kashdan, 2009).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동일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의미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속성을 지니며 안녕감을 준다는 주장도 있어(김유진, 2012; 조은향, 2009; Jiang, Bai, & Xue, 2016; Wang, & Dai, 2008), 삶의 의미추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Dezutter et al., 2013; Steger et al., 2008).

의미추구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몇몇 연구자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변인 간 관련성에 기초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에 따른 차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련성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미추구의 속성이 의미추구를 하는 사람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추구를 하게 되는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추구를 하게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승화, 2014; Dezutter et al., 2013). 삶의 의미 연구를 폭넓게 개관한

Park(2010)는 앞으로 삶의 의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로 개인차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국내 연구를 개관한 박은선과 박지아(2013)도 삶의 의미 연구의 과제로서 성격특질, 인지 스타일, 신념 등의 차이로 의미추구와 발견 및 그에 따른 안녕감을 경험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개인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인에 따른 가치관(Oishi, Diener, Suh, & Lucas, 1999; Sagiv, & Schwartz, 2000), 현실과 이상 간의 불일치(Steger et al., 2006), 자아탄력성(조은향, 2009; Bonnano, 2004) 및 신경증적 성향(Mascaro, & Rosen, 2005; Steger et al., 2008)과 같은 개인특성은 경험과 환경으로부터 서로 다른 수준의 삶의 의미를 끌어내므로 개인차로 인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군집분석이나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이다(이승화, 2014; Dezutter et al., 2013; Dezutter, Luyckx, & Wachholtz, 2014). 삶의 의미연구에서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승화(2014)는 중년을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개인차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였고 4개의 집단을 추출하였다. 구별된 집단은 의미추구 무관심형(추구와 발견 둘 다 낮음), 의미추구 진행형(추구와 발견이 중간), 개별화가 낮은 만족형(추구는 낮고 발견은 높음), 삶의 의미충족형(추구와 발견 모두 높음)이었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모두 낮은 집단은 중년기 위기감이 가장 높았으며, 모두 높은 집단은 삶의 목적과 성장이 가장 높았다. 의미추구는 낮고 의미발견은 높은 집단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나 자율성과 통제력은 낮게 나타나 이승

화(2014)는 중년기까지 심한 위기감 없이 살아왔거나 삶의 통찰 없이 의미를 발견한 구성원들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Dezutter 등(2013)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을 군집분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높은 집단, 둘 다 낮은 집단, 의미추구가 높고 의미발견이 낮은 집단, 의미발견이 높고 의미추구가 낮은 집단, 미분화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잠재계층을 구분한 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국내 대학생들의 삶의 의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삶의 의미에 관한 종단연구가 드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앞서 이승화(2014)나 Dezutter 등(2013)의 연구는 모두 횡단적으로 진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낮은 의미추구와 높은 의미발견 집단이 과거에 이미 의미추구를 해서 의미발견을 이룬 것인지, 의미추구 없이도 의미발견을 가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각각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의미추구가 의미발견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각 개인이 서로 다른 인지 양식, 동기, 성격 차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방식과 정도로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간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의미발견 양상은 다르게 변화할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를 폭넓게 개관한 Park(2010) 및 Steger 등(2006)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단순히 구별된 개념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총체적인 진행 과정에 속함에도 두 변인 간 관련성이 대부분 한 시점에서 분석되었다는

점이 혼란스러운 결과를 이끌 수 있었다고 보고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종단적 관점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매우 소수의 연구에 해당하며(Dezutter et al., 2014),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거의 없어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변화양상 및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구분해주는 방법인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하여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종단적 변화양상이 개인차에 따라 어떠한 집단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고 집단 간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집단을 구분하는 분석 방법은 변수와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는 변인 중심적 접근과는 달리, 개인의 특성에 따른 동질적 특성을 공유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에 개인상담이나 교육에서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잠재계층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삶의 의미와 관련된 변인 중 기본심리욕구, 의도적 및 침습적 반추, 긍정 및 부정정서, 삶의 만족을 중심으로 집단의 차이 및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본심리욕구는 여러 연구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로서 제안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지칭한다(Sheldon, Ryan, & Reis, 1996). 이러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내재적 동기를 활성화해서 삶의 의미 경험을 상승시킬 수 있다(Fry, 1998; Gable, Reis, Impett, & Asher, 2004). Ryan과 Deci(2000)는 자기 결정성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을 통하여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심리적 욕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삶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경험들을 탐색하고 이해하여 기존의 경험과 연결지으려는 고유한 내적 동기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즉,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의미추구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삶의 방향과 신념을 만들고 조절해가는 일련의 지속적인 과정이자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 중에서도 Folkman(1997)은 유능성과 관계성이, Gable 등(2004)도 유능성과 관계성이 삶의 의미와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국내에서는 김유진(2012)이 기본심리욕구가 삶의 의미발견을 촉진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김경희와 이희경(2011)은 유능성과 관계성과는 달리 자율성은 삶의 의미발견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Steger 등(2008)도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의미추구를 덜 하게 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본 심리욕구의 하위 요인과 삶의 의미추구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논란이 되어온 삶의 의미추구가 어떠한 속성을 갖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추는 과거에는 주로 부정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사건의 원인이나 사건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사고하는 정교한 인지적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Bower, Kemeny, Taylor, & Fahey, 2003; Michael, & Snyder, 2005). Calhoun과 Tedeschi(2006)는 반추를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와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로 구분하였는데, 의도적 반추는 사건이 주는 이득과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식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자발적

으로 하는 생각이며, 침습적 반추는 삶의 위기 속에서 자동적으로 침입해오는 반추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은 삶의 의미추구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속성으로 구분하려는 시도와 유사하게 닳아있는데 Calhoun과 Tedeschi(2006) 또한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meaning making)이 삶의 의미추구와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경험적 연구는 여전히 반추와 삶의 의미추구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보여준다. Steger 등(2006)은 현상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추를 하는 경향이 의미추구와 관련된다고 설명한 반면, 신선영과 정남운(2012)은 삶의 의미추구는 의도적 반추와 관련되어 삶의 긍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도적 반추와 침습적 반추로 구별되는 반추와 삶의 의미추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추구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할 수 있다(Park, & Yoo, 2016).

또한, 정서는 삶의 의미발견과는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Kafka, & Kozma, 2002). 선행연구들은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의미발견을 촉진하며 의미발견이 높을수록 행복 등의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밝혔다(Debats, Drost, & Hansen, 1995; King, Hicks, Krull, & Del Gaiso, 2006; Zika, & Chamberlain, 1992). Fredrickson(2000)은 긍정정서를 경험할 때 삶의 조망이 확장되기 때문에 의미발견이 촉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Reker와 Wong(1988)도 삶의 의미발견은 만족감, 충만함과 같은 감정에 뒤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와 이희경(2011)의 연구에서도 긍정정서의 경험은 인지적 조망을 확장 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윤민지(2012)는 긍정정서가 그 자체로 삶의 만족을 높이지는 않지만, 의미발견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긍정정서가 의미추구를 통해서 삶의 만족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 간의 관련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경험적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부정정서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Watson, Clark, & Tellegen, 1988), 스트레스, 건강, 주관적 고통과 관련되며, 자동적 사고 및 자살사고를 고조시킴으로써 시야를 좁게 하여 공격, 도피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다(Fredrickson, 2000). 또한 긍정정서와는 반대로 사고와 행동의 연결고리를 좁혀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다. 부정정서는 삶의 의미와 밀접히 관련되며(Kafka, & Kozma, 2002), 부정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삶의 의미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King et al., 2006).

삶의 만족이란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의해 삶의 질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으로(Shin, & Johnson, 1978), 삶의 만족은 삶의 의미발견과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yff, & Singer, 1998; Steger, & Kashdan, 2007; Zika, & Chamberlain, 1992). 하지만 의미발견이 따르지 않는 의미추구만으로는 삶의 만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이 지적되면서 의미추구 자체가 부정적인 속성을 지녀 삶의 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정미영, 2010; 정주리, 이기학, 2007; Davis, Wortman, Lehman, & Silver, 2000; Samman, 2007).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관련성은 지속적인 정적 관련성을 보이지만 의

미추구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는 아직 불분명하다. 삶의 의미가 삶의 만족에 주는 영향력은 다른 변인의 조절 효과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하는데, 연령, 의미발견의 선행 여부와 같은 조절 변인에 따라 의미추구가 삶의 만족에 주는 영향력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다른 변인의 영향에 의하여 의미추구와 삶의 만족 간의 관련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으로, Bronk, Hill, Lapsley, Talib와 Finch(2009)는 대학생,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가 삶의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연구했는데 의미발견은 모든 연령대에 삶의 만족을 높였지만, 의미추구는 대학생에게서만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2010)의 연구에서도 조절 효과가 나타났는데 낮은 의미발견 상태에서는 의미추구가 긍정적이지 않게 나타났지만 높은 의미발견 상태에서는 의미추구가 긍정적 속성을 지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이미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의미추구를 할 것인 반면, 의미발견이 없이 추구만 하는 사람들은 실존적 좌절감과 싸워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횡단적인 연구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미발견의 선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및 삶의 만족에 관한 종단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관련성을 더욱 명확히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양상이 동질적인 집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형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정신건강 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의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집단의 변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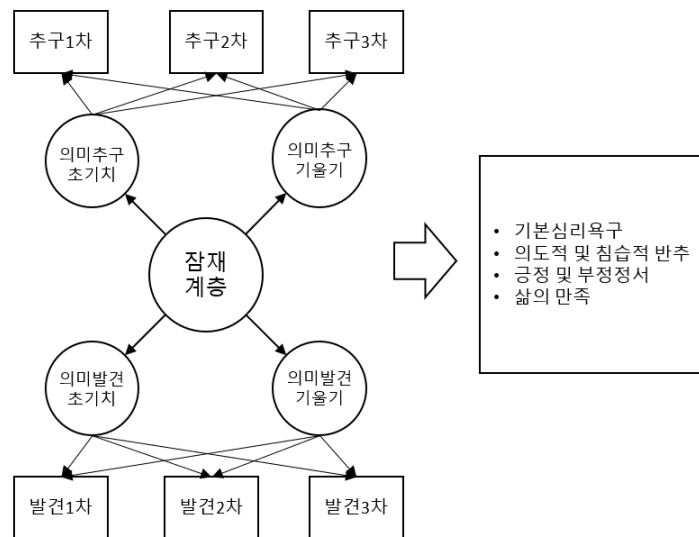


그림 1. 잠재계층성장모형과 관련 변인의 개념적 모델

는 어떠한가?

둘째, 분류된 잠재계층 집단은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반추(의도적 반추, 침습적 반추), 정서(긍정, 부정), 삶의 만족에서 유의미한 집단차이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대학 11곳에 재학 중인 1,087명의 대학생으로, 연구는 6개월마다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시점에 수집된 총 1,092명의 자료 중 불성실 응답자 5부를 제외한 1,087명이 참여하였으며 2차 시점에는 475명(남 227명, 여 248명), 3차 시점에는 370명(남 166명, 여 20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1차 설문참여는 설문에 동의하고 참여하였지만, 2차 연구부터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대상을 제외하고 2차 연구에도 참여를 허락한 대상은 921명(남 503명, 여 418명)이므로, 1차 시점의 51.6%인 475명(남 227명, 여 248명)이 2차 연구에 참여하였고, 3차 시점에는 1차 시점의 40.2%이자 2차 시점 기준으로는 77.9%인 370명(남 166명, 여 20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차 시점에 참여한 뒤 2차 시점에만 참여한 사람은 475명,

1차와 3차에 참여한 사람은 3명, 1차, 2차, 3차 모두 참여한 사람은 370명이었다. 1차 시점에 참여한 뒤, 2차와 3차 시점 중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609명은 분석에서 제외 한 478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시점 참여자는 남학생 606명(55.7%), 여학생 481명(44.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3($SD=2.39$)세였다. 학년은 1학년 241명(22.2%), 2학년 372명(34.2), 3학년 236명(21.7%), 4학년 228명(21.0%), 기타 8명(0.7%)이었다. 학과는 인문계열 348명(32.0%), 사회계열 306명(28.2%), 공학계열 241명(22.2%), 자연계열 84명(7.7%), 사범계열 13명(1.2%), 예체능계열 19명(1.7%), 기타 및 미기재 64명(7.0%)이었다. 본 연구는 대학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한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설문 전에 연구의 취지와 중단 연구 실시방법 및 참여자 권리 및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힌 별도의 연구참여동의서 2부에 서명한 후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연구자가 1부, 참여자가 1부씩 소장하였다. 응답자들은 1차에서 3차까지 동일한 설문 포함된 설문에 참여하였다. 2차, 3차 시점에는 문자 및 이메일 참여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의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표 1. 참가자 현황

	1차	2차	3차
남	606명(55.7%)	227명(47.8%)	166명(44.9%)
여	481명(44.3%)	248명(52.2%)	204명(55.1%)
전체	1,087명(100.0%)	475명(100.0%)	370명(100.0%)

측정도구

삶의 의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Steger 등(2006)이 개발한 MLQ(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변안 및 타당화 한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의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는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향과 추동인 의미추구(meaning search) 5문항과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의미발견(meaning presence) 5문항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미추구 문항은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며, 의미발견 문항은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나는 만족할만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등으로 구성된다. Steger 등(2006)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각각 .87,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의 1차, 2차, 3차 신뢰도가 .89, .87, .88로 나타났고 의미발견의 1차, 2차, 3차 신뢰도는 .91, .92, .91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Ryan과 Deci(2002)가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한 BPNS(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를 국내에서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3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됨을 의미한다.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3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0, .79, .75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87,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2, .82, .84, 전체는 .82로 나타났다.

반추

Cann 등(2011)이 개발한 ERRI(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를 국내에서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과 심기선(2013)이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건 관련 반추 척도는 총 2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생활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이후에 발생하는 인지적인 과정으로서의 반추를 측정한다. 하위 척도는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와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하여 4점 리커트 척도로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ann 등(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의도적 반추와 침습적 반추가 각각 .88, .94이었으며, 한국판으로 타당화 한 안현의 등(2013)의 논문에서는 .95, .96으로, 본 연구에서는 .93, .91로 나타났다.

긍정 및 부정 정서

긍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등(1988)이 개발한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을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역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정서 10문항, 부정정서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는 최근 한 달 동안 제시된 각 정서를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대해

여 5점 척도로 평정한다. 긍정정서는 ‘활기찬’, ‘열정적인’ 등의 형용사가 제시되어 있으며, 부정정서는 ‘신경질적인’, ‘과민한’ 등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긍정정서가 .88, 부정정서는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긍정정서 .86, 부정정서 .84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국내에서 김정호(2007)가 변안한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척도의 5문항으로 되어 있다. Diener 등(1985)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으며, 김정호(2007)의 연구에서는 .84로,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절차 및 방법

분석절차 및 각 절차에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2, 3차 자료가 모두 사용된 삶의 의미 척도는 3차 시점 각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이외의 변인의 경우 모형에서 사용된 3차 시점의 점수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각각 살펴보지 않고 두 변인이 동시에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발달궤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계층의 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평행과정 잠재계층성장분석(Parallel Process 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통하여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종단적 변화를 고려한 잠재계층을 도출하였다. 잠재계층성장분석은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의 특수한 한 형태로 전체 집단에서 각각의 다른 변화양상을 가진 잠재계층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전체 계층 내에 서로 이질적인 변화의 특징을 공유하는 하위 잠재계층을 도출하기 때문에 변수 중심적인 접근방법은 변인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군집분석이나 잠재계층과 같은 사람-중심의 접근은 그룹 내 개인들은 그룹 간 개인들보다 더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개인의 반응패턴에 따라 개인을 구별된 그룹으로 분류한다(Jung, & Wickrama, 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집단 간 성장 요인의 분산을 ‘0’으로 고정된 분석 방법으로 각각의 계층에 대한 평균성장곡선은 추정하지만, 평균성장곡선에 대한 개인 간 변이는 추정되지 않는다(Jung, & Wickrama, 2008).

잠재계층의 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탐색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적합도 지수 및 모형의 차이검정결과 및 Entropy(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적합도 지수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BIC(the Sample size-adjusted BIC; Sclove, 1987), AIC(Akaike's I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등으로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둘째, 통계검정을 위한 지수인 LMR(Lo, Mendell, & Rubin, 2001)과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 Peel, 2000)은 잠재계층이 K개인 모형과 K-1인 모형을 비교하여, P값이 유의하면 K-1개인 모형은

기각되고, K개인 잠재계층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Iwamoto, Corbin, & Fromme, 2010).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좋은 것으로 본다(Hix-Small, Marks, Squires, & Nickel, 2000). 이 외에도 하위집단별 최소비율의 고려(Hill, White, Chung, Hawkins, & Catalano, 2000) 및 이론적 개념적 구분에 따른 실제적인 유용성을 확인하여 결정하게 된다(Nagin, 2005). 셋째, 잠재계층의 수가 결정된 이후에는 관련 변인들의 3차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집단 차가 유의한 경우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18.0, Mplus 6.11이다.

결 과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 기본심리욕구, 반추, 긍정 및 부정정서, 삶의 만족의 기술통계,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왜도 및 첨도가 0을 기준으로 하여 0과 다르면 정규분포 가정을 벗어 났다고 볼 수 있지만 Kline(2011)의 경우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의미추구의 경우 왜도의 절대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Kline(2011)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다른 변인들도 이와 같

표 2.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삶의 의미	의미추구(1차)	5.50	1.03	-.90	1.31
	의미추구(2차)	5.55	1.04	-1.02	1.85
	의미추구(3차)	5.51	1.02	-.90	1.27
	의미발견(1차)	4.92	1.11	-.30	-.22
	의미발견(2차)	4.99	1.12	-.50	.05
	의미발견(3차)	5.04	1.15	-.66	.20
기본심리욕구	자율성(3차)	4.46	.81	-.49	.11
	유능성(3차)	4.38	.81	-.60	.85
	관계성(3차)	4.79	.73	-.56	.34
반추	의도적 반추(3차)	1.78	.69	-.30	-.18
	침습적 반추(3차)	1.26	.79	.10	-.65
정서	긍정정서(3차)	3.26	.72	-.28	-.07
	부정정서(3차)	2.82	.85	.02	-.45
삶의만족	삶의 만족(3차)	4.45	1.19	-.18	-.44

은 기준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차 시점부터 3차 시점까지의 의미발견의 평균값은 4.92, 4.99, 5.04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추구는 3시점 동안 5.50~5.55로 대체로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1차, 2차, 3차 간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의 상관관계는 .17~.32로 낮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차 자료를 기준으로 의미추구와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r = .22, p < .001$), 유능성($r = .33, p < .001$), 관계성($r = .33, p < .001$), 의도적 반추($r = .27, p < .001$), 긍정정서($r = .16, p < .001$), 삶의 만족($r = .20, p < .001$)과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요인 중

침습적 반추($r = -.04, p > .05$)와 부정정서($r = -.09, p > .05$)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자료를 기준으로 의미발견은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r = .42, p < .001$), 유능성($r = .55, p < .001$), 관계성($r = .42, p < .001$)과는 중증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의도적 반추($r = .24, p < .001$), 긍정정서($r = .36, p < .001$)와는 낮은 정적 상관을, 삶의 만족($r = .54, p < .001$)와는 중증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침습적 반추($r = -.26, p < .001$)와 부정정서($r = -.25, p < .001$)와는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성장모형 분석

표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41***	1											
3	.51***	.45***	1										
4	.32***	.17***	.19***	1									
5	.30***	.29***	.25***	.70***	1								
6	.28***	.26***	.31***	.62***	.69***	1							
7	.15***	.14***	.22***	.31***	.29***	.42***	1						
8	.23***	.28***	.33***	.40***	.40***	.55***	.55***	1					
9	.27***	.24***	.33***	.29***	.32***	.42***	.41***	.53***	1				
10	.27***	.18***	.27***	.30***	.26***	.24***	.17***	.26***	.33***	1			
11	-.10	-.09	-.04	-1.6***	-.20***	-.26***	-.27***	-.29***	-.24***	.06	1		
12	.18***	.18***	.30***	.38***	.29***	.36***	.37***	.54***	.45***	.28***	-.24***	1	
13	-.04	-.05	-.09	-.13**	-.15***	-.25***	-.43***	-.40***	-.25***	-.05	.54***	-.20***	1
14	.16***	.14***	.20***	.43***	.40***	.54***	.39***	.56***	.43***	.26***	-.36***	.53***	-.35***

주. *** $p < .001$, ** $p < .05$

1. 의미추구(1차), 2. 의미추구(2차), 3. 의미추구(3차), 4. 의미발견(1차), 5. 의미발견(2차), 6. 의미발견(3차), 7. 자율성 8. 유능성, 9. 관계성, 10. 의도적반추, 11. 침습적반추, 12. 긍정정서, 13. 부정정서, 14. 삶의 만족

잠재계층의 수 결정

의미발견과 의미추구의 발달궤적에 있어 이질적인 패턴을 보이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행과정 잠재계층성장모형(parallel process latent class growth model)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각 모형의 적합도 및 통계검정결과를 비교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 수의 결정은 정보화 지수인 AIC, BIC, SBIC와 모형 비교검정인 LMR과 BLRT 검정결과 및 Entropy

값을 기준으로 이론적, 실질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층 수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BLRT 검정의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7개의 집단까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7개로 분류된 계층부터는 최소 집단의 수가 1% 미만으로 대표성을 지니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IC와 SBIC는 계층 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적어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BIC는 6개 계층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가 다시

표 4.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변화

계층수	AIC	BIC	SBIC	Entropy	LMR-LRT <i>p</i> -value	BLRT <i>p</i> -value
2	7390.745	7453.289	7405.681	.776	.000	.000
3	7254.737	7338.129	7274.651	.758	.311	.000
4	7163.591	7267.832	7188.485	.801	.249	.000
5	7059.100	7184.188	7088.972	.822	.108	.000
6	7010.160	7156.097	7045.011	.799	.049	.000
7	6993.231	7160.015	7033.060	.815	.103	.000
8	6974.441	7162.074	7019.249	.827	.263	미수렴

표 5. 5 class 잠재계층별 비율

잠재계층수	잠재계층에 속하는 비율(%)							
	1	2	3	4	5	6	7	8
2	63.0	36.9						
3	40.9	44.7	14.3					
4	3.1	44.2	37.4	15.2				
5	6.4	3.4	44.3	33.6	12.3			
6	26.0	3.5	41.7	17.5	5.1	6.3		
7	15.6	5.0	25.5	5.8	2.7	0.6	44.5	
8	16.5	3.3	26.6	41.3	2.7	5.9	3.0	0.6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LMR-LRT의 유의도 검정 결과도 6개 계층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BIC가 가장 적고 LMR-LRT검정 결과가 유의한 6개 계층이 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각 집단 별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5개 계층에서 6개 계층으로 한 계층이 늘어난 것에 비해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ntropy는 6개의 계층 분류보다 5개 계층의 분류가 .822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모형의 간명성, 적합도 지수, 통계검정, 이론적 구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계층을 5개로 결정하였다.

각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응답자가 실제로 그 집단에 속할 확률인 평균사후확률(mean posterior probabilities)의 범위도 .87~.91로 나타나 5개의 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계층수별 집단의 비율은 표 4에 제시하였으며 5개 집단의 비율은 집단 1은

30명(6.4%), 집단 2는 16명(3.4%), 집단 3은 217명(44.3%), 집단4는 160명(33.6%), 집단 5는 55명(12.3%)이었다.

잠재계층의 특성 및 명명

최종으로 선정된 5개 계층 모형에서 각 집단 별 기울기와 초기치를 표 6에 제시하고 각 잠재계층 집단의 의미발견과 의미추구의 변화양상 및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잠재계층별 종단적 변화 형태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명명은 집단의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평균점수에 0.5 표준편차 값을 빼거나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값이 크거나 작은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의 시간에 따른 변화 여부, 관련 정신건강 변인과의 관련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각 집단명은 ‘부적응적 의미추구형’, ‘적응적 의미발견형’, ‘의미추구 진행형’, ‘적응

표 6. 5 class 잠재계층별 함수 추정결과

	구분	n (%)	초기치		변화율	
			M	SD	M	SD
부적응적 의미추구형 (높은 추구-낮은 발견)	의미추구	30 (6.4)	6.00***	.19	-.06	.17
	의미발견		3.06***	.21	.24	.24
적응적 의미발견형 (낮은 추구-높은 발견)	의미추구	16 (3.4)	4.60***	.46	-.49**	.23
	의미발견		6.42***	.17	-.10	.09
의미추구 진행형 (중간 추구-중간 발견)	의미추구	217 (44.3)	5.47***	.15	-.03	.05
	의미발견		4.82***	.15	.03	.05
적응적 의미성취형 (높은 추구-높은 발견)	의미추구	160 (33.6)	6.23***	.08	-.05	.04
	의미발견		5.86***	.12	.04	.04
의미발견 정체형 (낮은 추구-낮은 발견)	의미추구	55 (12.3)	4.23***	.20	.10	.19
	의미발견		3.67***	.17	-.04	.18

주. *** $p < .0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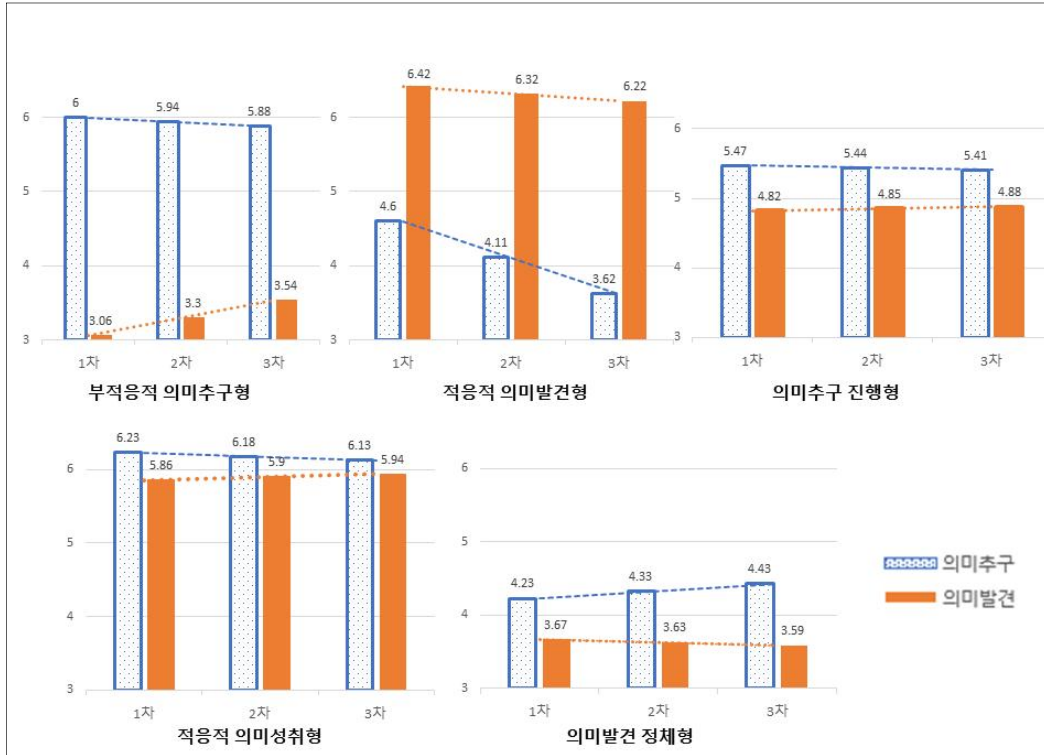


그림 2. 잠재계층별 종단적 변화 형태

적 의미성취형’, ‘의미발견 정체형’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집단 1은 ‘부적응적 의미추구형(높은 추구-낮은 발견)’으로 명명하였으며, 30명(6.4%)이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의미추구 초기값은 6.00($p < .001$)이었으며, 의미발견의 처음 평균 절편의 초기값은 3.06으로 나타났다($p < .001$). 평균 기울기는 의미추구는 -.06, 의미발견이 0.24로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집단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의미추구는 +.05 표준편차를 넘는 고수준을 초기값부터 유지하고 있었으며, 의미발견은 초기부터 -.05 표준편차 보다 낮은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2는 ‘적응적 의미발견형(낮은 추구-높은 발견)’으로 명명하였으며, 16명(3.4%)이 속하는 가장 작은 집단이다. 의미추구의 평균 절편의 초기값은 4.60($p < .001$)으로 -.05 표준편차 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며, 기울기는 -.49($p < .001$)로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미발견은 평균 절편의 초기값이 6.42($p < .001$)로 +.05 표준편차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아 높은 수준의 의미발견을 유지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3은 217명인 전체의 44.3%가 해당하는 가장 많은 대상이 해당하는 집단으로 ‘의미추구 진행형(중간 추구-중간 발견)’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의 의미발견 초기치 평균은 4.82

($p < .001$)로 유의하였으며, 기울기는 0.03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의 초기치는 의미발견의 평균점수와 -.05수준의 표준편차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여 중간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추구 초기치의 평균은 5.47($p < .001$)로 나타났으며 기울기는 -.03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미추구도 의미추구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05수준 사이에 점수에 해당하여 이 집단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둘 다 평균 수준에서 이를 유지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집단 4는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해당하는 사례는 160명(33.6%)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집단에 해당했다. 의미추구 초기치의 평균은 6.23이었으며($p < .001$), 변화율은 -.05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미발견의 초기치의 평균은 5.86로 유의미하였으며($p < .001$), 변화율의 평균은 .04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의미발견의 초기치는 +.05의 표준편차점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의미발견이 유지되었으며, 의미추구도 +.05

표준편차점수보다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주어 의미발견과 의미추구가 모두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집단 5는 ‘의미발견 정체형(낮은 추구-낮은 발견)’으로 명명하였으며 55명(12.3%)이 이 집단에 해당되었다. 의미추구는 4.23으로 유의하였고($p < .001$), 기울기는 .1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미발견의 초기치의 평균은 3.67로 유의하였으며($p < .001$), 기울기는 -.04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집단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점수는 모두 표준편차 .05 수준의 점수보다 더 낮아 낮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별 정신건강 특성 분석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변화궤적에 따른 5개의 집단에서 각 집단이 관련 변인인 관련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각 집단

표 7. 잠재계층별 관련변인의 집단차 검정 결과

	①부적응적 의미추구형	②적응적 의미발견형	③의미추구 진행형	④적응적 의미성취형	⑤의미발견 정체형	F (Games -Howell)	사후검정 결과
	M(SD)	M(SD)	M(SD)	M(SD)	M(SD)		
자율성	4.03(1.02)	4.97(96)	4.29(73)	4.82(70)	4.13(72)	14.35***	②,④>①,③,⑤
유능성	3.96(.80)	4.62(1.03)	4.26(.73)	4.85(.56)	3.68(.86)	28.28***	②,④>①,③,⑤
관계성	4.73(.76)	5.23(.63)	4.63(.69)	5.16(.49)	4.18(.82)	23.67***	②>③>⑤ ④>③>⑤
의도적반추	1.58(.70)	1.85(.98)	1.71(.63)	2.04(.64)	1.37(.65)	9.99***	④>①,③>⑤ ②>⑤
침습적반추	1.40(.97)	1.05(.98)	1.36(.72)	1.05(.78)	1.46(.79)	3.68**	①,③,⑤>④
긍정정서	2.90(.76)	3.37(1.21)	3.13(.68)	3.65(.59)	2.80(.65)	20.69***	④>①,③>⑤
부정정서	3.10(.77)	2.97(1.21)	2.88(.80)	2.62(.86)	2.95(.84)	3.87**	①,⑤>④
삶의만족	3.41(1.28)	5.08(1.12)	4.27(1.03)	5.10(1.07)	3.73(.96)	22.91***	④>③>①,⑤ ②>①,⑤

주. *** $p < .0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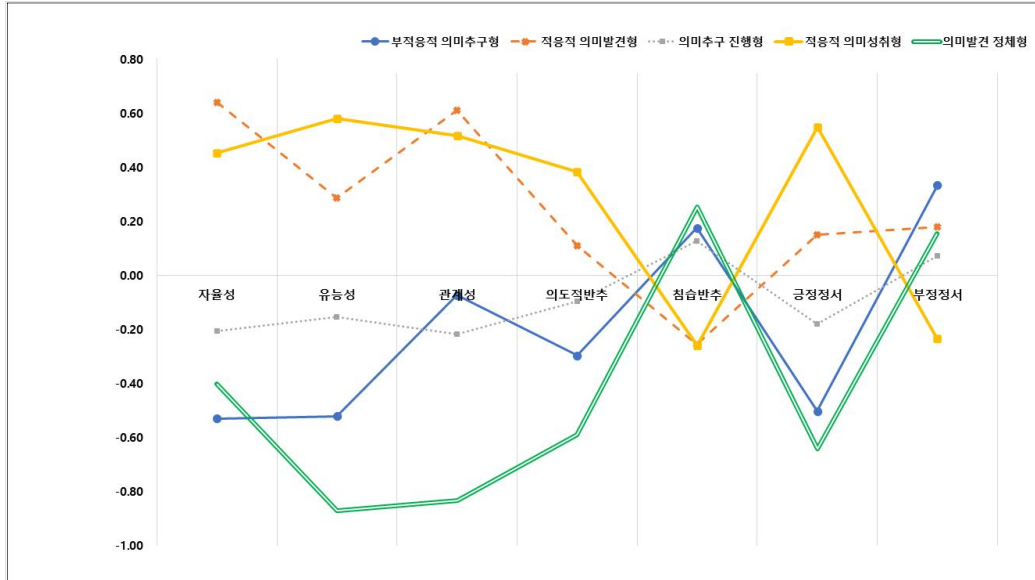


그림 3. 잠재계층별 정신건강 변인에 따른 집단차

별로 관련 변인의 값을 Z점수로 표준화시켜 정신건강 관련 집단 간 차이를 제시한 그래프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Games-Howell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각 잠재계층 집단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중 어떤 집단들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사후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인 자율성은 적응적 의미발견형(낮은 추구-높은 발견)과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능성도 그 양상이 같았다. 관계성은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과 적응적 의미발견형(낮은 추구-높은 발견)이 의미추구 진행형(중간 추구-중간 발견)과 의미발견 정체형(낮은 추구-낮은 발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는 적응적

의미발견형(높은 추구-높은 발견)과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미발견 정체형(낮은 추구-낮은 발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침습적 반추는 부적응적 의미추구형(높은 추구-낮은 발견), 의미추구 진행형(중간 추구-중간 발견)과 의미발견 정체형(낮은 추구-낮은 발견)이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긍정정서는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발견 정체형(낮은 추구-낮은 발견)에서 가장 낮았다. 부정정서가 가장 높은 집단은 부적응적 의미추구형(높은 추구-낮은 발견)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은 적응적 의미발견형(낮은 추구-높은 발견)과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응적 의미추구형(높은 추구-낮은 발견)과 의미발견 정체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연령대에서 가지는 삶의 의미의 특성과 양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 및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성장 분석을 통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종단연구를 진행하여 의미추구과 의미발견의 변화양상을 공유하는 집단을 구분해내고 이들의 정신건강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5개의 잠재계층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적응적 의미추구형(높은 추구-낮은 발견)은 의미발견의 초기값이 가장 낮고 의미추구는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집단으로 연구대상의 6.4%에 해당했다. 두 번째 집단인 적응적 의미발견형(낮은 추구-높은 발견)은 의미발견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의미추구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집단으로 3.4%가 이에 해당하였다. 의미추구 진행형(중간 추구-중간 발견)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중간 수준에서 유지되는 집단으로 연구대상 중 가장 많은 44.3%가 이 집단에 속했다.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은 의미발견과 의미추구가 모두 높은 수준인 집단으로 33.6%가 이 집단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발견 정체형(낮은 추구-낮은 발견)은 의미발견과 의미추구가 모두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집단으로 의미추구 수준이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12.3%의 연구대상이 이 집단에 해당하였다.

잠재계층별로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적응적 정신건강 특성을 보인 집단은 적응적 의미발견형(낮은 추구-높은 발견)과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이었으며,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부적응적 의미추구형(높은 추구-낮은 발견)과 의미발견 정체형(낮은 추구-낮은 발견)이었다.

각 집단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의미추구형(높은 추구-낮은 발견)은 의미추구의 동기는 높아 삶의 의미를 추구는 하지만 의미발견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러한 시도가 의미 획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집단이었다.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하지만 자율성, 유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하는 등 의미추구가 긍정적인 성취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은 부정정서도 가장 높고 삶의 만족은 가장 낮게 나타나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집단은 의미추구가 높고 의미발견이 낮다는 점에서는 발견-추구 모델(Steger, Oishi, & Kashdan, 2009)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견-추구 모델이란 삶의 의미추구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중 하나로 삶의 의미가 없다고 여길 때 의미를 추구한다는 모델이다(Steger et al., 2009). 지속적인 의미추구의 노력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의미추구는 부정적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의미발견이 양

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의미에 대한 경험 없이 이루어지는 의미추구의 형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삶의 의미 획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의미추구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Duffy, & Raque-Bogdan, 2010; King, & Hicks, 2009; Park et al., 2010; Steger et al., 2009) 및 의미발견이 없을 때는 의미추구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Cohen과 Clairns(201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이들의 의미추구 속성을 반추의 측면에서 추측해본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침습적 반추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이들의 의미추구는 부적응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던지는 답이 없는 질문과도 같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형태의 의미추구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의미추구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의미추구는 두 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는데(Subtrica et al., 2016), 긍정적 양상을 보이는 적응적인 추구(adaptive search)와 부정적 양상을 보이는 부적응적 추구(maladaptive search)로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횡단적으로 설계된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의미추구의 영향력에 대한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힘들었던 점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추구를 지속함에도 의미발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부적응적 의미추구는 의미발견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종단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적응적 의미발견형(낮은 추구-높은 발견)은 가장 작은 비율을 보이는 집단으로 의미추구가 낮은 수준에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의미발견을 보이는 집단이었다. 일반적으로 의미를 추구한 이후에 의미의 발견이 이어지리라 예상하지만, 이 집단은 높은 의미발견 이후에 의미추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횡단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질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삶의 의미가 없다고 여길 때 의미를 추구한다는 발견-추구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미발견이 없는 상황에서 의미추구가 시작되는 경향성을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높은 의미발견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미추구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집단은 발견-추구 모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의미추구가 낮고 의미발견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 상반된 해석을 한 바 있다. 이승화(2014)의 연구에서는 정체감 유실상태의 부정적 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Dezutter 등(2013)은 이미 의미추구를 끝낸 의미를 성취한 긍정적인 집단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두 개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상반된 결과는 횡단적으로 설계된 연구로 인해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동시적 발달양상 및 그 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가 유의한 수준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집단을 의미발견을 이룬 이후에 의미추구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집단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한 근거로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찰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의도적 반추도 이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편이며 개인의 내적 자원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변인에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의미발견이 높은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정적 관련성을 가지고 삶의 만족을 높이며 대학생 연령대에서 의미추구가 긍정적 속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김상희, 박성현, 2017)을 본 연구의 결과와 종합해볼 때, 의미추구 자체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높은 의미발견과 함께 이루어지는 의미추구는 삶의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적응적 의미성취형(높은 추구-높은 발견)은 의미발견이 높은 상태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미추구를 지속하는 집단으로 의미추구가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의미발견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국내 대다수의 선행연구(김유진, 2012; 원두리 등, 2005; 조은향, 2009; Jiang, Bai, & Xue, 2016; Steger et al., 2008; Wang, & Dai, 2008)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집단이다. 그러한 근거로 이 집단에 속한 대학생들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의도적 반추, 삶의 만족 등의 긍정적 정신건강 요인들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정적 정서나 침습적 반추는 낮게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높은 의미추구가 긍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찰해나가는 것을 의도적 반추를 긍정적 속성의 의미추구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집단은 높은 의도적 반추를 보였기에 긍정적인 의미추구를 통하여 의미발견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으로 판단하였다. 즉, 높은 수준의 의도적 반추는 높은 수준의 의미추구가 긍정적 정신건강을 보이는 데 있어 의미추구가 적응적 의미추구의 형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삶의 의미발견이 높을

때의 의미추구는 긍정적 속성을 지닌다는 선행연구(Cohen, & Cairns, 2012; Park et al., 2010)와도 일치되는 맥락에서 의미발견 이후에도 적응적 의미추구를 지속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정신건강을 보여주며 삶의 의미 획득이 삶의 만족을 높여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의미발견 정체형(낮은 추구-낮은 발견)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의도적 반추가 가장 낮고, 긍정정서는 낮고 부정정서는 높게 나타나 개인적 자원이 적고 안녕감도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이다.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지 못한 상태로 이를 극복할만한 개인적 강점도 적어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판단되었다.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 대학생의 발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의미추구 수준이 높지 않으며,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대학생들을 찾아내어 돕는 것은 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원들로서 자율성, 유능성, 의도적 반추와 같은 내적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의미추구 노력과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학생들은 이러한 자원의 개발을 통해 건강한 삶의 의미 획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은 의미추구를 덜 하게 하거나(Steger et al., 2008) 혹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었는데(김경희, 이희경, 201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은 삶의 의미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긍정적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것을 인과적인 과정으로 보고 매개 변인을 탐색하는 변인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차를 기반으로 한 종단적 변화양상을 다룬 국내 첫 연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어떤 집단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집단의 발달양상을 이해하여 개인이 성장시켜야 할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이 어떠한 의미추구를 하느냐에 따라 의미발견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긍정적 의미추구와 그렇지 못한 의미추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발달과정의 분석이나 횡단적인 연구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경로이며 이를 통해 개인차에 따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변화양상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나타난 집단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삶에서 의미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의미추구의 수준보다는 의미발견의 수준이 긍정적 정신건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미발견이 높은 집단은 의미추구의 상태와 관련 없이 가장 긍정적인 적응양상을 보였으며, 긍정적 개인특성 요인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발견이 낮은 집단은 의미추구의 상태와 관련 없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며 개인적 자원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질

문하며 깨달아 가기 위한 삶의 의미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삶의 의미를 증진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심리교육에의 참여를 통하여 삶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성찰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상담에서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무의미감을 경험하는 대학생에게 지지적이고 진실하게 접촉할 수 있는 상담의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의미발견을 촉진하도록 도와야 하며, 개인 상담이 제공하는 돌봄의 경험이 삶의 의미를 추구해가는 과정에 안전한 토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미발견이 높을 때 이루어지는 의미추구는 긍정적 속성을 지닌다는 선행연구결과(Park et al., 2010)를 확장해 볼 때 적어도 국내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의미를 획득하였을 때 새로운 의미추구를 추구할 힘을 얻어 다음의 의미추구도 더 잘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인 의미추구가 선행하여 의미발견을 이끈다는 주장(김경희, 이희경, 2013)을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나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발견 이후에 의미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의미추구를 하게 된다는 발견-추구 모델의 부정적 피드백 사이클(Heylighen, & Joselyn, 2001)과는 반대의 결과이나, 본 연구의 부적응적 의미추구형과 적응적 의미발견형의 경우는 발견-추구 모델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의미추구의 형태나 속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단기 종단연구라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다룬 것은 제한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종단연구를 통하여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삶의 의미발견과 의미추구의 변화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관한 종단연구도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최근의 삶의 의미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전반적 신념(global meaning in life)과 일상적 신념(daily meaning in life)으로 구분하기도 한다(Park, & Gutierrez, 2013). 본 연구의 삶의 의미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전반적 신념을 바탕으로 연구되었으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의미인 일상적 신념은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삶의 전반적 신념과 일상적 신념으로 드러나는 삶의 의미가 종단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지니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표집으로 인하여 잠재계층 성장 분석에 참여한 인원수가 500명 정도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를 5개의 집단으로 구별한 이후에 가장 작은 집단의 인원수는 100명이 되지 않아 잠재계층별로 가능한 통계적 검정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어 잠재집단 각각에 대하여 잠재성장모형 등의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각 집단의 종단적 특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희, 이희경 (2011). 긍정정서와 자기결정성 요인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2, 1353-1370.
- 김경희, 이희경 (2013). 의미추구와 긍정정서가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07-124.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상희, 박성현 (2017). 연령대별 삶의 의미와 안녕감의 관계: 10대, 20대, 40대 간 의미추구,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1), 61-78.
- 김유진 (2012). 삶의 의미추구 및 발견,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25-345.
- 박은선, 박지아 (2013). 삶의 의미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29(1), 267-299.
- 신선영, 정남운 (2012).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인간이해*, 33(2), 217-235.
- 송현심, 성승연 (2017).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 향: 희망,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843-870.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 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7.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RRI)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 211-225.
- 윤민지 (2012). 긍정정서와 삶에 대한 만족 관계에서 긍정사고, 의미발견 및 의미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승화 (2014). 삶의 의미추구와 발견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과 심리적 안녕감.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정미영 (2010). 삶의 의미발견과정에 관한 연구: 의미추구, 의미발견, 사생관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주리, 이기학 (2007). 의미발견을 통한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모형 검증: 문제해결 책임감과 긍정적 재해석을 매개로. *상담학연구*, 8, 1309-1321.
- 조은향 (2009).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긍정 및 부정정서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 하, 신희천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1011-1026.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period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Bonna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 Bower, J. E., Kemeny, M. E., & Taylor, S. E. (2003). Finding positive meaning and its association with natural killer cell cytotoxicity among participants in a bereavement-related disclosure intervention.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5(2), 146-155.
- Bronk, K. C., Hill, P. L., Lapsley, D. K., Talib, T. L., & Finch, H. (2009) Purpose, hope, and life satisfaction in three age group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00-510.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6).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pp. 3-23). Mahwah, NJ: Erlbaum.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 traumatic cognitive proces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An International Journal*, 24(2), 137-156.
- Cohen, K., & Cairns, D. (2012). Is searching for meaning in life associated with reduced subjective well-being? Confirmation and possible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313-331.
- Côté, J., & Bynner, J. M. (2008). Chang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the UK and Canada: The role of structure and agency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11, 251-268.
-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R., & Silver, R. C. (2000).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s correct? *Death Studies*, 24, 497-540.
- Debats, D. L., Drost, J., & Hansen, P. (1995). Experiences of meaning in life: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6, 359-375.
- Dezutter, J., Luyckx, K., & Wachholtz, A. (2014). Meaning in life in chronic pain patients over time: associations with pain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8(2), 384-396.
- Dezutter, J., Waterman, A. S., Schwartz, S. J., Luyckx, K., Beyers, W. 4., Meca, A. 5., Kim, S. Y., Whitbourne, S. K., Zamboanga, B. L., Lee, R. M., Hardy, S. A., Forthun, L. F., Ritchie, R. A., Weisskirch, R. S., Brown, E. J., & Caraway, S. J. (2013). Meaning in life in Emerging Adulthood: A Person-Orient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82, 57-68.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uffy, R. D., & Raque-Bogdan, T. L. (2010). The motivation to serve others: Exploring relation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 250-265.
- Folkman, S. (1997). Positive psychological states and coping with severe str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5(8), 1207-1221.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NY: Pocket Books.
- Fredrickson, B. L. (2000).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and Treatment*, 3(1), 1-25.
- Fry, P. S. (1998). The development personal meaning and wisdom in adolescence: A reexamination of moderating and consolidating factors and influences. In P. T. P. Wong & P. 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 91-110).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able, S. L., Reis, H. R., Impett, E. A., & Asher, E. R. (2004). What do you do when things go right?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Benefits of Sharing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2), 228-245.
- Heine, S. J., Proulx, T., & Vohs, K. D. (2006). The meaning maintenance model: On the coherence of social motiv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 88-110.

- Hendry, L. B., & Kloep, M. (2007). Redressing the emperor!-A Rejoinder to Arnett.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83-85.
- Heylighen, F., & Joselyn, C. (2001). Cybernetics and second-order cybernetics. In R. A. Meyers (Eds.) *Encyclopedia of physical science & technology* (pp. 1-24). NY: Academic Press.
- Hill, K. G., White, H. R., Chung, I.,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 24, 892-901.
- Hix-Small, H., Marks, K., Squires, J., & Nickel, R. (2000). Impact of implementing developmental screening at 12 and 24 months in a pediatric practic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20(2), 381-389.
- Iwamoto, D. K., Corbin, W., & Fromme, K. (2010). Trajectory classes of heavy episodic drinking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ddiction*, 105(11), 1912-1920.
- Jiang, Y., Bai, L., & Xue, S. (2016). Validation of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nd invariance across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3(3), 41-48.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Compass*, 2, 302-317.
- Kafka, G. J., & Kozma, A. (2002). The construct validity of Ryff's scal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PWB) and their relationship to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 171-190.
- King, L. A., & Hicks, J. A. (2009). Detecting and constructing meaning in life event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317-330.
- King, L. A., Hicks, J. A., Krull, J., & Del Gaiso, A. K. (2006). Positive affect and the experience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179-196.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The Guilford Press.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 Mascaro, N., & Rosen, D. H. (2005). Existential meaning's role in the enhancement of hope and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73(4), 985-1013.
- McLachlan, G., & Peel, D. A. (2000). *Finite Mixture Models*. NY: Willey.
- McIntosh, D. N., Silver, R. C., & Wortman, C. B. (1993). Religion's role in adjustment to a negative life event: coping with the loss of a chi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812-821.
- Michael, S. T., & Snyder, C. R. (2005). Getting unstuck: the roles of hope, finding meaning, and rumination in the adjustment to berea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Death Studies*, 29(5), 435-458.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Oishi, S., Diener, E. Suh, E., & Lucas, R. E. (1999). The value as a moderator model i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67, 157-184.
- Park, C. L. (2010). Making sense of the meaning literature: An integrative review of meaning making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36, 257-301.
- Park, C. L., & Gutierrez, I. A. (2013). Global and situational meanings in the context of trauma: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6(1), 8-25.
- Park, C. J., & Yoo, S. K. (2016). Meaning in life and its relationships with intrinsic religiosity, deliberate rumina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Asian Journal of Society*, 19(4), 325-335.
- Park, N., Park, M., & Peterson, C. (2010). When is the search for meaning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2, 1-13.
- Reker, G. T., & Wong, P. T. P. (1988). Aging as an individual process: toward a theory of personal meaning. In J. E. Birren & V. L. Bengtson (Eds.) *Emergent theories of aging* (pp. 214-246). NY: Springer.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ff, C. D., & Singer, B. H.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 1-28.
- Sagiv, L., & Schwartz, S. H. (2000). Value prior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direct relations and congruity effec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177-198.
- Samman, E. (2007). Psychological and subjective wellbeing: A proposal for internationally comparable indicators. *Oxford Developmental Studies*, 35, 459-486.
- Schwart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Sheldon, K. M., Ryan, R., & Reis, H. T. (1996).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d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2), 1270-1279.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1), 475-492.
- Steger, M. F., & Kashdan, T. B. (2007). Stability and specificity of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over one year.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 161-179.
- Steger, M. F., Kashdan, T. B., Sullivan, S., & Lorentz, D. (2008). Understanding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Personality, cognitive style, and the dynamic between seeking and experiencing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76, 199-228.
- Steger, M. F., & Park, C. L. (2012). The creation

- of meaning following trauma: Meaning making and trajectories of distress and recovery. In T. Keane, E. Newman, & K. Fogler (Eds.) *Toward an integrated approach to trauma focused therapy: Placing evidence-based interventions in an expanded psychological context* (pp. 171-19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80-93.
- Steger, M. F., Oishi, S., & Kashdan, T. B.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43-52.
- Subtrica, N. O., Pop, E. I., Luyckx, K. DeZutter, J., & Steger, M. F. (2016). The meaningful identity: A longitudinal look at the interplay between identity and meaning in lif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2*(11), 1926-1936.
- Wang, M. C., & Dai, X. Y. (2008). Chines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Revised in college students and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 459-461.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ong, P. T. P. (2012). *The human quest for meaning: Theories, research, and applications*. NY: Routledge.
- Zika, S., & Chamberlain, K. (1992). On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3*, 133-145.
- 원 고 접 수 일 : 2021. 07. 30
수정원고접수일 : 2021. 11. 02
게 재 결 정 일 : 2021. 12. 03

Longitudinal Change of University Students' Search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and its Relationship with Mental Health

Hyojin Cho¹⁾

Sung-Kyung Yoo²⁾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classified university students' search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into groups based on longitudinal change, and examined whether groups showed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A surve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ree times with a six-month interval.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ata from 478 students. The analysis revealed five groups, which were named 'maladaptive meaning-seeking type (high search-low presence),' 'adaptive meaning-presence type (low search-high presence),' 'ongoing meaning-seeking type (middle search-middle presence),' 'adaptive meaning achievement type (high search-high presence),' and 'stagnant meaning-presence type (low search-low presence).' The 'adaptive meaning-presence type' and 'adaptive meaning achievement type' appeared to have good overall mental health. 'Maladaptive meaning-seeking type' and 'stagnant meaning-presence type' appeared to be experiencing a great deal of mental health difficulties. Based on the findings, th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meaning in life, mental health, latent class growth model